

로버트 피터슨 박사, 인간과 죄, 15차 세션, 원죄, 로마서 5:12-19, 계속

© 2024 Robert Peterson 및 Ted Hildebrandt

이것은 인간과 죄에 대한 교리를 가르치는 로버트 A. 피터슨 박사입니다.
이것은 세션 15, 원죄, 로마서 5:12-19, 계속입니다.

죄에 대한 교리를 공부하는 우리의 여정에 다시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우리는 로마서의 Textus Classicus, 로마서 5:19, 12-19의 더 큰 맥락에서
작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기 전에 주님을 찾도록 합시다.
아버지, 당신의 말씀과 당신의 영과 그리스도인 교제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축복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는 로마서 1장 16절과 17절에서 바울이 로마서의 주제인 복음, 곧
하나님의 구원하는 의의 계시를 선포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즉시 1:18에서 3:20까지 하나님의 진노의 계시에 대한 논의를
시작합니다. 3:21에서 바울은 그 목적 진술에서 선포한 주제, 즉 하나님의
구원하는 의의 계시로 돌아갑니다. 바울은 이제 율법과 별도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고 말합니다.

이 구원의 의는 인간의 공로와는 전혀 별개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구약의 약속의 성취입니다. 율법과 선지자가 그것을 증거하지만, 율법과는
별개로 바울은 성경에 반대하는 말을 했다는 오해를 받지 않기 위해
스스로를 붙잡습니다.

율법의 첫 번째 용례는 인간의 공로에 대해 말하지만, 이제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구원하는 의가 율법과 공로 있는 관념과는 별개로 드러났습니다.
율법과 선지자들이 그것을 증거하지만 말입니다. 이 의는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이 차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을 위한 믿음을 통한 하나님의 의입니다.

믿음의 자리를 강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미 목적 진술에서,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며, 그것은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믿는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믿음에서 믿음으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기록된 대로,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그래서 적어도 세 번은 믿음에서 믿음으로의 언어가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 논쟁이 있었습니다. 아마도 믿음에서 믿음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그런 것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3:21에서 그 주제로 돌아오자마자, 그는 말합니다. 이 의로움, 이 구원하는 의로움은 율법을 지키는 것과는 별개이지만 구약에서 증거된 것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을 위한 믿음을 통한 것입니다.

그리고 로마서 4장은 로마서에서 가장 위대한 믿음 장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이 믿음의 필요성을 축소하는 것은 아닙니다. 구별이 없기 때문입니다.

구원은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을 위한 믿음을 통해 주어지는데, 구별이 없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아마도 여기서 시제의 구분은 아담의 죄와 인간의 실제 죄를 말하는 것일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고, 과거 시제이며, 부족합니다. 그것은 진행형일 수도 있고, 현재일 수도 있고,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진행형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을 통해 선물로서 그의 은혜로 의롭다고 인정받습니다.

이 점에서 인간 사이에는 차이가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고, 계속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찬양을 얻지 못합니다. Doug Moo는 그의 로마서 주석에서 이 두 시제에 대한 해석에 동의합니다.

24절은 22절의 생각을 이어받습니다. 그의 은혜로 믿고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은 모든 사람. 그런 다음 바울은 로마서 3장 24절에서 26절까지 의롭다함의 근거 또는 근거를 제시합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속죄입니다. 바울은 24절에서 예수의 속죄적 죽음을 구속으로 제시하지만, 25, 26절에서는 주로 화해로 제시합니다. 그는 단순히 구속을 언급하지만, 화해를 설명합니다.

하나님은 그의 사랑하는 아들의 죽음에서 그의 정의를 증명하십니다. 믿는 자들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로 선물로 의롭다고 인정받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는 하나님께서 그의 피로 화해 제물로 내놓으사 믿음으로 받게 하셨습니다.

신성한 관용이 있습니다. 그는 이전의 죄를 간과하셨습니다. 그것은 지금 이 시대에 자신의 의로움을 보여 주시고, 예수를 믿는 자를 의롭게 여기시고 정당화하시는 분이 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칭의의 근거는 그리스도의 사역이 구속으로 구상된 것(24절)이지만, 여기서는 주로 화해로 표현됩니다. 우리는 실제 원죄 구절에서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이 의로움으로 묘사되어 의로움을 얻는다는 것을 볼 것입니다. 특히 그의 희생에서 말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사랑하는 아들의 죽음에서 그의 공의를 증명하셨습니다.

구약 시대에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속죄를 기대하며 믿는 자들을 용서하셨습니다. 로마서 3:25에 따르면, 하나님의 신성한 관용 가운데서 그는 이전의 죄를 간과하셨습니다. 구약 시대에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속죄를 기대하며 믿는 자들을 용서하셨습니다.

동물 희생은 복음의 그림이었지만, 그 자체로는 죄를 없애지 못했습니다. 히브리서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듯이, 히브리서 9장과 15장에서 그리스도의 희생이 옛 언약 아래서 죄를 대신하여 사용되었기 때문에, 그것은 죄를 없앴습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하나님께서서는 그리스도의 속죄에 대한 전망으로 죄인과 신자들을 용서하셨습니다. 그는 아직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죄를 없애지 않으셨습니다. 이제 때가 차서 하나님께서는 그의 희생적 죽음, 그의 피 안에서 그리스도를 화해 제물로 내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죄인들이 받을 만한 정죄를 대신 받은 그의 아들에게 분노를 쏟으셨습니다. 신약성서에서 화해에 대한 더 자세한 설명은 Leon Morris의 *Apostolic Preaching of the Cross*를 참조하세요. 또한 DA Carson은 Gordon Conwell의 신학자를 위한 기념 책인 *festschrift*에 대한 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Roger Nicole, Roger Nicole을 위해, 속죄의 영광, 십자가의 영광, 그런 것. Carsten은 로마서 3:24, 26에 대한 해석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름답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나님은 정의로우시기 위해 자신의 도덕적 성실성을 유지하셨지만 죄인들을 정당화하실 수 있었습니다. 여기에 복음의 기적이 있습니다. 문제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상상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신이 어떻게 누군가를 벌할 수 있을까? 성경적으로 답하기 쉬운 질문이다. 성경의 세 번째 장과 로마서의 처음 세 장은 신이 세상을 쉽게 정죄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성경적 문제는 신이 어떻게 자신의 거룩한 성격을 유지하면서도 누군가를 구원할 수 있는가이다.

문제는 바로 그것입니다. 하느님께서 죄인을 어떻게 심판하실 수 있을까요? 문제 없습니다. 그들은 그럴 자격이 있고, 하느님은 거룩하고 정의로우십니다.

문제는 그가 어떻게 거룩하고 정의롭고 누구를 구원할 수 있는냐는 것입니다. 이 문제에 대한 답은 물론 하나님 자신이 제공합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속죄의 죽음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성의 의로운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화해 제물로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정의롭고 예수를 믿는 자를 정당화하기 위해, 우리는 이 프레젠테이션에서 믿음을 최소화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믿음을 확립합니다

믿음은 그 대상만큼만 좋다. 적절한 대상은 화해로 구상된 그리스도의 죽음이다. 로마서 3:25, 26 구원의 의로움으로.

로마서 5:18과 19. 3장의 나머지 부분은 구원에 관한 인간의 업적을 자랑하는 것을 배제합니다. 사람들은 믿음으로 의롭게 되며 인간의 노력으로 의롭게 되지 않습니다.

27절과 28절. 바울은 하나님의 연합에 근거한 논증을 사용하여 유대인과 이방인이 같은 방식으로 구원받는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아니면 하나님은 유대인만의 하나님이신가요? 3장 29절. 그는 이방인의 하나님도 아니신가요? 그렇습니다. 이방인의 하나님도 아니신가요.

하나님은 할례받은 자를 믿음으로 의롭게 하시고, 할례받지 않은 자를 믿음으로 의롭게 하실 분이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믿음으로 율법을 무너뜨리겠습니까?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는 율법을 지킵니다.

31절에서 사도는 율법을 무효화하기보다는 옹호한다고 주장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오해에 대비합니다. 4장은 칭의의 수단을 신중하게 제시합니다. 오직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입니다.

로마서 5:1, 5장은 이 무상 의화의 혜택을 제시합니다. 하나님과의 객관적인 평화.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으로 의화되었으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1절. 11절에 포함된 것이 있습니다. 그 이상으로,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 안에서 기뻐합니다. 그분을 통해 우리는 이제 화해를 받았고, 이는 평화를 이루는 것을 의미합니다. 칭의의 축복은 하나님과의 평화입니다.

1절과 11절. 미래의 영광에 대한 소망. 2절에서 5절.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는 이제 믿음으로 이 은혜 안에 서게 되었고, 하나님의 영광의 소망 안에서 기뻐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는 고난이 인내를 낳는다는 것을 아는 것을 기뻐합니다. 인내는 품성을 낳고 품성은 소망을 낳습니다. 우리는 바울의 생각을 이해하려면 줄 사이를 읽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을 신뢰하며 버티고 고통을 겪을 때, 주님은 그들을 세우시고, 그들을 꾸준한 사람으로 만드십니다. 그리고 그들이 지금 그들의 삶에서, 그리고 그들이 볼 수 있는 것에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볼 때, 그들이 지금 볼 수 없는 것에서 영광에 대한 그의 미래의 약속에 대한 소망이 커집니다 . 그리고 더 나아가 로마서 5장 5절입니다.

이 소망은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주어진 성령을 통해 우리 마음에 부어졌기 때문입니다. 칭의의 유익과 하나님과의 평화. 로마서 5:1, 11.

미래의 영광에 대한 소망. 2절에서 5절. 그리고 영원한 안전. 6절에서 10절.

우리가 아직 적절한 때에 약할 때에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아니한 자들을 위하여 죽으셨느니라. 의로운 자를 위하여 죽는 자가 거의 없거니와 선한 자를 위하여는 감히 죽는 자가 있을지니라. 인류 가운데서 누군가가 친구를 위하여 죽는다는 것은 전혀 들어보지 못한 일이 아니지만 누군가가 적을 위하여 죽는다는 것은 전혀 들어보지 못한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것으로 우리를 향한 그의 사랑을 증명하셨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그런 다음 그는 유대인의 주장을 두 번 사용합니다.

만약 신이 더 어려운 일을 했다면, 그는 더 쉬운 일을 할 것이다. 그는 그것을 약어로 정당화하는 측면에서 한다. 그는 그것을 화해의 측면에서 한다. 그는 그것을 완전히 펼쳐 보인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피로 의롭다고 선언된 이후로, 하나님께서는 죄인들을 의롭다고 선언하셨습니다. 더욱이, 이것이 더 어려운 것에서 더 쉬운 것으로의 이 유대인적 주장의 핵심입니다. 더욱이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구원받을 것입니다. 세상에! 우리가 정죄받았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의롭다고 선언하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의롭다함을 얻었으므로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구원의 그림을 사용한 정확히 같은 주장을 화해라고 합니다. 우리가 원수였을 때 더 어려운 것은 우리가 그의 아들의 죽음으로 하나님과 화해되었다는 것입니다.

와!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속죄를 통해 원수를 친구로 만드셨습니다. 더욱이, 우리가 화해한 지금, 우리는 그의 생명으로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과 그의 원수 사이에, 그들과 그 사이에 평화를 이루셨다면, 이제 우리가 더 이상 그의 원수가 아니므로, 그는 우리를 구원하실 것입니다.

그 이상으로, 우리는 이전에 설명했듯이 이제 화해를 받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 안에서 기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마침내 우리의 구절에 도달하게 됩니까? 위대한 원죄 본문인 로마서 5:12-21은 이 패턴에 어떻게 들어맞습니까? 저는 바울이 칭의에 대한 논의의 끝에서 칭의의 근거를 제시할 때와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을 제시한다고 제안합니다. 3, 24, 25에서 바울은 예수께서 화해 제물로 죽으셨다고 설명했습니다.

여기서 그는 믿는 자들을 위해 의로움을 확보하기 위해 죽었습니다. 5장 18절에 언급된 의로움의 한 행위. 3:24, 26에서 바울은 속죄의 부정적인 측면, 분노를 돌리는 것, 부정적인 뺄셈, 제거를 제시했습니다.

그런 다음, 로마서 5:12-21에서 그는 긍정적인 측면, 즉 그리스도께서 의를 얻으시고, 돌이키시고, 진노를 돌이키시고, 의를 허락하시는 것을 제시합니다. 이 분석이 맥락상 맞다면, 로마서 5:12-21은 원죄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칭의의 근거로서 그리스도의 구원하는 의에 대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 구절들은 아담의 죄가 인류에게 큰 영향을 미쳤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러므로 그것은 정당화라는 주제 하에서 원죄에 대한 주목할 만한 설명입니다. 로마서 1:19에서 5:21까지의 주장에 대한 이 요약은 염두에 두고, 이제 로마서 5장 12절에서 19절까지의 해석으로 나아갈 준비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원죄에 대한 주제에 대한 성경의 구절입니다. 이 사건은 창세기 3장에 기록되었습니다. 그 결과는 구약과 신약 전반에 걸쳐 있지만, 원죄에 대한 신학에 대한 성경의 유일한 명확한 처리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 결과는 에베소서 2:1-4에 암시되어 있으며, 다른 곳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

에베소서 5:12. 그러므로 죄가 한 사람, 곧 아담을 통해 세상에 들어왔고, 사망이 죄를 통해 들어왔고,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퍼졌듯이, 바울이 대조를 시작해서 완성하지 않았기 때문에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그는 5, 18, 19에서야 그것을 완성합니다.

죄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고,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퍼졌으니, 내가 그를 위하여 그것을 완성하리라. 또한 의와 생명이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타났느니라. 그는 지금 말하지 않지만, 그와 비슷한 것을 그가 가려고 했던 것이다.

그의 생각은 끊어졌습니다. 모든 주석가가 올바르게 말합니다. 이 구절은 카이아스틱 구조를 따라 두 부분으로 나뉜 것 같습니다.

하나는 죄 A와 B, 즉 인류의 죽음의 존재이고, 둘째는 죽음 B prime과 죄 A prime이 인류 사이에 보편성이라는 것입니다. 죄 A가 한 사람을 통해 세상에 들어왔고, 죽음 B가 죄를 통해 들어왔듯이, 죽음 B prime은 모든 사람에게 퍼졌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A p rime. 이 구절에는 then-절이 없는 비교절의 if-절, protasis가 들어 있습니다.

protasis 가 있는데 , 이는 15, 18, 19, 21절과 비교하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에 대해 자세히 설명할 것입니다. 이 구절들은 과정에서 hos 또는 hosper를 사용 하고 huts kai를 사용합니다. if-절에서는 as 또는 just as를 사용하고 then-절에서는 so then 또는 so the refore를 사용합니다.

따라서 이 문구는 전혀 비슷하지 않습니다. 잘못된 그리스 정보를 제공하는 것과 같은 것은 없습니다. 좋은 생각이 아닙니다. 조심하세요.

dia 로 시작합니다 tuta , 따라서 dia라는 문구는 tuta 는 인과적이거나, 다음 단어에 대한 대응의 기초를 마련하거나, 앞의 단어를 다시 언급하거나, 추론적이거나, 앞의 단어에서 추론을 도입합니다. 저는 실제로 S. Lewis Johnson의 훌륭한 논문인 Romans 5:12, An Exercise in Exegesis and Theology에 의지하고 있습니다. Richard Longenecker와 Merrill Tenney가 편집한 New Dimensions in New Testament Study라는 책에 실려 있습니다. 따라서 이 문구가 1:18에서 시작하는 전체 주장을 다시 언급하는지, 아니면 단지 5:1-11을 언급하는지 아는 것은 어렵습니다.

5:1-11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구절은 다시 언급합니다. 비교절은 죄가 한 사람을 통해 세상에 들어온 것처럼 시작합니다. 아담과 원죄에 대한 언급입니다. 저는 사전 446, 존슨, 302, 크랜필드, 국제 비평 주석에 동의합니다. 여기서 세상은 인류로서의 세상을 의미합니다.

비슷한 세상의 용례가 로마서 3:6, 19, 5:13에서 발견됩니다. 아담의 죄를 통해, 침입자로 의인화된 죄가 인간 세계로 들어왔습니다. 다음 절은 생략되었고, 죽음을 통해 세상에 들어왔으며, 죄를 통해 암시되었습니다.

아담은 죄가 세상에 들어오는 데 책임이 있었습니다. 죽음은 아담의 죄를 통해 두 번째 침입자로 들어왔습니다. 앤더스 니그렌은 죄와 죽음이 세상에 폭군으로 존재한다고 쓰고 인용합니다. 이는 그것을 강력하게 표현한 방식으로, 사람들에게 그들이 그들을 섬길 것인지 묻지 않고 자동적으로 통치합니다.

그래서 죽음은 모든 사람에게 왔습니다. 그래서, 혼동하지 않기 위해, 몇 번 아래에, 그것은 첫 번째 사람의 죄를 통해 두 침입자가 인류에게 들어온 결과로 인한 결과나 방식을 보여줍니다. 죽음은 모든 사람에게 비우호적인 방문객으로 왔습니다.

모든 인간은 아담의 죄의 결과로 죽었습니다. 12절은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이라고 결론지었습니다. 크랜필드와 존슨, 제가 언급한 논문인 S. 루이스 존슨, 303과 305는 전치사가 때문으로 번역되어야 한다고 설득력 있게 주장합니다.

이 구절의 의미는 이렇게 요약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구절의 의미에 대해 동방과 서방 교회 사이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요약하자면, 아담의 죄로 인해 모든 인간에게 죽음이 왔습니다.

이는 아담이 죄를 지었을 때 또는 그 후에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해석적이고 신학적인 문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한 사람이 죄를 지었고 모든 사람이 죄를 지은 것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습니까? 12절은 이 질문에 답하지 않습니다.

답은 이어지는 구절에 대한 해석에 있습니다. 마지막 절,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는 어려운데, 첫째, 문맥상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는 것에 대한 공동의 이해를 요구하는 듯하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리고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침입자들은 죽음으로 죄를 지었고, 아담의 죄를 통해 세상에 들어왔고, 그 결과 모든 사람이 죽었습니다. 모두가 개별적으로 죄를 지었기 때문인가요? 오히려 모두가 아담 안에서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죽었습니다.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바울의 다른 모든 곳에서 모든 사람이 개인적으로 죄를 지었다는 의미가 있다고 주장합니다.

크랜필드와 헨드릭슨은 그렇다고 말합니다. 이게 유일한 예외일까요? 5:13과 14는 매우 어렵고, 저는 옵션을 살펴보는 동안 많은 학생들을 잠재웠습니다. 하지만 제가 주해 신학에 헌신한다면, 우리가 해야 할 옵션을 살펴볼 것입니다.

여기서 4, gar는 설명 절을 소개합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웰스는 13절과 14절이 12절을 설명한다고 말했습니다. 모든 죄가 지어진다면 그 절은 생략되기 때문에 율법을 읽어야 합니다.

그래서 번역에서 큰 대시를 넣었습니다. 사실 죄는 율법이 주어지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율법이 없는 곳에서는 죄가 셀 수 없습니다.

그러나 아담에서 모세까지 죽음이 통치했습니다. 아담의 범죄와 같지 않은 죄를 지은 자들 위에도 죽음이 통치했습니다. 아담은 오실 자의 예표였습니다. Whew. 여기서의 율법은 분명히 모세의 율법을 가리킵니다.

맞습니다. 죄는 사실 율법이 주어지기 전에 세상에 있었습니다. 이야기의 마지막에서 그는 아담에 대해 모세에게 이야기하는데, 좋은 이야기입니다.

아담부터 모세까지, 아담 시대부터 아담에서 모세까지 모세의 율법이 주어질 때까지 죽음이 통치했다고 말하는 14절과 비교하면, 죄는 세상에 있었습니다. 사실, 침입자, 죄와 죽음, 14절은 떠나지 않았습니다. 인간은 아담부터 모세까지 죄를 지었고 죽었습니다.

다음 절은 법이 없거나 없을 때 죄가 누군가의 계정에 청구되지 않는다고 덧붙입니다. 여기 정상적인 상황, 즉 노믹 현재에 대한 진술이 있습니다. 죄는 청구되지 않습니다.

그게 사실이에요. 법이 없는 곳에서는 규칙적인 사실 진술이에요.

로마서 4:15를 비교해 보세요. 율법이 없으면 범법도 없습니다. 로마서 5:13b, 방금 읽은 내용입니다. 율법이 없으면 죄가 셀 수 없습니다. 매우 문제가 됩니다.

그 의미에 대한 견해는 적어도 5가지가 있습니다. 으악. 사회적 비난의 견해.

절대적 감각 관점. 그때는 법이 있었다는 관점. 상대적 또는 비교적 감각 관점.

죄와 범법의 관점을 구분합니다. 사회적 비난 관점. 매튜 블랙, New Century Bible은 바울이 사회적 비난의 스타일로 자신이나 상상의 상대와 논쟁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죽음이 모든 사람에게 왔으므로 모든 죄가 있었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의 율법이 주어지기 전까지는 세상에 죄가 있었느니라. 그러나 율법이 없는 곳에는 죄가 있을 수 없었을 것이라고 주장할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죄는 귀속될 수 없고 따라서 처벌받을 수 없습니다. 당신은 법이 없는 곳에서 이의를 제기합니다. 그럴 수도 있지만, 죽음은 아담에서 모세까지 지배했고, 모세 이후로도 그랬고, 심지어 아담의 범법과 정확히 같은 죄가 아닌 사람들에게도 지배했습니다.

B, 절대적 감각적 관점. Herman Ridderbos는 13절과 14절의 논증에서 인용하여, 바울은 여기서 율법이 주어지기 전의 시기에 호소하는데, 그 이유는 당시에 살아 있던 사람들의 죽음은 그들 자신의 개인적 죄에서

설명될 수 없고, 아담의 죄에서 그 원인이 있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때에도 죄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율법이 오기 전까지는 세상에 죄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율법의 제재인 죽음은 아직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습니다(4:15 비교). 율법이 없을 때는 죄가 귀속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 아담과 같은 방식으로 범법하지 않은 사람들, 즉 아담과 같은 방식으로 신성한 명령과 그에 대한 제재를 직면하지 않은 사람들 위에 죽음이 군림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의 죽음의 원인은 그들의 개인적인 죄가 아니라 아담의 죄와 그들의 죄에 대한 몫이었다는 것이 분명합니다. 당시에는 법이 있었습니다. 존 머레이는 이렇게 썼습니다. 제 말은, 이들은 선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인용문, 바울의 가르침이나 일반적인 성경과 일치하지 않습니다. 바울이 여기서 의미하는 바가 죄가 있을 수 있지만, 율법이 없는 곳에서는 죄로 간주되지 않는다는 것이라고 가정하는 것은 말입니다. 이것은 4:15와 모순됩니다. 율법이 없고, 범법도 없습니다. 이 구절에서 고려하지 않는 정당화 은혜의 조항을 제외하고, 죄가 간주되지 않는 것은 죄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는 율법도 있었음을 암시합니다. 모세가 시나이에서 한 것처럼 율법이 공포되지 않았더라도 율법은 있었다는 생각입니다. 이는 죄가 있었다는 사실로 나타납니다.

율법이 없었다면 죄도 없었을 것입니다. 4:15에 따르면 죄는 율법을 어긴 것으로만 존재합니다. 그리고 죄가 존재하는 곳에서는 그것이 무엇인지에 대해 귀속되어야 합니다.

윌리엄 헨더슨은 "죄는 시나이산의 율법이 주어지기 전에도 세상에 존재했습니다. 아담에서 모세까지의 기간 동안 죄의 형벌인 죽음이 최고를 지배했다는 사실에서 알 수 있듯이요."라고 동의합니다. 그러므로

아담에서 모세까지의 기간 동안에도 죄가 고려되었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시나이산의 율법이 명시적으로 명령된 것은 아직 없었지만, 율법은 있었습니다.

여기서 사도는 의심할 여지 없이 그의 서신에서 앞서 쓴 내용, 즉 마음에 대한 하나님의 법에 대해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단지 2:14와 15절을 제시하고 있으며, 이 법은 방탕한 범죄자에 대한 처벌로서 사망을 수반하는 것이 실제로 적용되었습니다. 로마서 1 :18-32를 보십시오.

율법이 있었다는 것은 죄가 있었다는 사실에서 비롯됩니다. 율법이 없었다면 죄도 없었을 것입니다. 상대적 또는 비교적 감각적 관점.

칼빈은 하나님께서 아담과 모세 사이에 죄인들에게 죄를 돌리셨기 때문에 13절 하반절을 절대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합니다. 카인의 처벌, 알려진 세계를 파괴한 홍수, 소돔의 몰락,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집트인들에게 내린 재앙은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죄악을 그들에게 돌렸다는 것을 증거합니다. 이는 모두 칼빈의 인용문입니다.

그러나 대부분 그들은 자신의 악행을 묵인하여 강요받지 않는 한 죄를 자신에게 돌리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바울이 율법 없이는 죄가 돌려지지 않는다고 주장할 때, 그는 비교적 말하고 있는데, 왜냐하면 사람들이 율법에 의해 행동하도록 부추겨지지 않을 때, 그들은 게으름에 빠지기 때문입니다. 인용문 닫기.

나중에 칼빈은 율법이 없는 자들은 서로에게 죄를 돌리지 않았다고 진술한 인용문, 즉 선행 단어에 대해 언급합니다. 인용문 닫기. 크랜필드는 바울이 돌리지 않았다는 말은 그것이 사람들의 계정에 청구된다는 의미에서 계산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고 썼습니다.

그들에게 불리하게 여겨지고, 귀속됨. 율법이 없는 그 기간 동안 사람들이 죽었다는 사실 때문에, 14절은 이런 의미에서 그들의 죄가 실제로 기록되었다는 것을 충분히 분명히 보여줍니다. 귀속되지 않고, 귀속되지

없음은 상대적인 의미로 이해되어야 하며, 율법이 있을 때 일어나는 일과 비교해서만 이해되어야 합니다.

율법이 없다면 죄가 계산되지 않거나 귀속되지 않는다고 말할 수 있을까? 그는 계속해서 그리스어를 사용한다. 율법 없이 살았던 사람들은 누군가가 그들을 불렀듯이 확실히 무고한 죄인들이 아니었다. 그들은 자신이 무엇이고 무엇을 했는지에 대해 책임을 져야 했다.

그러나 율법이 나온 이후로 얻은 상태와 비교하면, 죄는 율법이 없는 상태에서 존재했고, 율법이 있는 상태에서는 완전히 명백하고 명확하게 정의된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기록되지 않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율법이 있는 상태에서만, 이스라엘과 교회에서만 죄의 완전한 심각성이 보이고 죄인의 책임이 모든 완화 사유에서 벗어났습니다.

5번 견해. 죄와 범법의 구별 견해. CH Dodd와 Moffat은 이 구절에서 죄와 범법을 구별합니다.

알려진 명령을 자발적으로, 책임감 있게, 유죄로 여기는 침해 또는 위법 행위 사이에 신중한 구분을 그립니다. 실제로 죄는 법이 없는 경우에는 결코 계산되지 않습니다. 즉, 알려진 옳다고 여겨지는 것에 반하는 행동을 하려는 의도가 없는 경우에는 죄책감을 수반하지 않습니다. 그 뒤를 이은 세대에서 사람들은 죄를 지었지만 많은 경우 아담처럼 위법 행위를 저지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죄는 율법이 없는 상태에서 결코 세어지지 않았지만, 객관적인 사물의 질서 속에서 죄의 해로운 영향이 그들에게 닥쳤습니다. 크리켓 선수들이 말하듯이, 이것은 참으로 난제입니다. 다음 구절로 넘어가서 모든 것을 정리하고 제 의견을 말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논쟁의 여지가 있는 단어들이 어떻게 기능하는지 확실히 알 수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비록 그것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독단적으로 말하기는 어렵더라도요. 하지만 죽음은 아담부터 모세까지 지배했습니다(1

4절). 여기서 우리는 죄의 영향이 율법이 주어지기 전에 느껴졌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사람들은 죽었습니다. 사실, 침입자 죽음은 아담과 모세 사이의 시간 동안 왕으로 통치했습니다. 죽음은, 인용문,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않은 사람들 위에도 통치했습니다. 인용문 닫기.

사전은 BAGD 2, 561페이지의 사전을 설명하면서, 이 절은 아담의 범법과 비슷하게, 즉 아담이 한 것처럼, 하나님의 명확한 명령 중 하나를 범한 것을 의미한다고 설명합니다. 그것이 바로 아담이 동산에서 한 일이며, 모세의 율법이 주어진 후에 가능한 일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서 먹지 말라는 금지령은 아담과 이브에게만 주어졌고, 율법은 모세의 시대까지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아담과 모세 사이에 살았던 사람들에게는 죽음이 지배했고, 그들은 이러한 명확한 금지 사항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담은 명확한 금지 사항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당신은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을 수 있지만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의 열매는 먹을 수 없습니다.

확실히, 너는 하지 말지니, 그리고 너는 해야 하리니는 명확한 명령과 금지입니다. 시간, 아담과 모세, 아담과 계명을 주는 사이에는 죄를 짓는 것이 다릅니다. 우리는 명확한 금지에 대해 알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죽었습니다. 우리는 그 감각에 도달하고 있는데, 그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래도, 아담과 모세 사이에 살았던 사람들 위에 죽음이 군림했습니다.

이 구절에 대한 이해는 오감과 관련된 어려운 13b에 대한 이해에 크게 달려 있습니다. 로마서 5:14b는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않은 사람들에게 대해서도 다양하게 해석되었습니다. 칼빈은 이 구절은 일반적으로 실제 범죄를 저지르지 않고도 원죄로 인해 죽는 어린아이에 대한 것이라고 썼습니다.

하지만 저는 일반적으로 율법 없이 죄를 지은 모든 사람을 지칭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을 선호한다고 그는 썼습니다. 인용문 닫기. 존 머레이는 동의하지만, 유아만 언급된다는 것은 확실하지 않습니다. 특별 계시의 범위 밖에 있는 사람들은 이 범주에 속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아담이 한 것처럼 계명을 범하지 않고 명백하게 드러냈습니다. 이 범주에 속한 성인들은 자연의 법칙에 반하는 죄를 지었지만, 14:15 마음에 대한 하나님의 법칙과 비교했을 때, 사도는 아담의 죄를 지적하고 그의 관심이 지금 집중되어 있는 전제, 즉 아담의 죄에 대한 모든 사람의 죄를 요구하는 것처럼 모든 사람 위에 죽음의 통치를 제시할 수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 여전히 인용하면서, 모세 이전 시대의 모든 사실을 고려할 때, 보편적 통치에 대한 유일한 설명은 아담의 죄에 대한 연대입니다.

동의합니다. 동의합니다. 아담과 모세의 죽음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죄를 지었고 죽었습니다. 죄의 값은 사망이라고 로마인들은 말합니다, 맞죠? 6:23. 하지만 바울이 암시하는 것은 사망은 설명할 수 있지만 사망의 통치는 설명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죽음의 통치는 아담이 에덴동산에서 지은 명백한 죄로 설명됩니다. S. 루이스 존슨은 현실주의란 우리가 실제로 아담의 허리에 있다는 관점이라고 썼습니다. 우리는 실제로 그의 몸 안에 물리적으로 있습니다. 그는 우리의 대표자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연스러운 머리입니다.

지금은 나중에 유도할 것들로 작업하고 있어요. 그는 우리의 자연스러운 머리입니다.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우리는 아담과 이브에서 나왔습니다 .

하지만 그의 자연스러운 우두머리 직분이 원죄가 작용하는 방식인가? 현실주의는 예, 현실적인 귀속이라고 말한다. 그것은 예라고 말한다. 이에 반대하고 현실적인 우두머리 직분 관점이 아닌 대표적인 칼빈주의 관점을 고수하는 S. 루이스 존슨은, S. 루이스 존슨은 현실주의는 로마서 14장과 그 마지막 절을 다룰 수 없다고 말한다.

그리고로 시작하는 두 번째 절은 죄를 짓지 않은 사람들에게 대한 특별한 계층을 가리킨다. 첫 번째 절에서 언급한 일반 계층과 구별된다. 두 번째 절은 유아 또는, 제 말을 용서해 주세요, 바보들로 구성되어 있다. 그것은 가까운 카운터처럼 보인다.

유아를 염두에 두고 있다면, 사도는 왜 이 기간을 선택했을까요? 첫째, 유아를 존중하십시오. 모든 기간에 동일하게 적용되며, 어느 기간도 다른 기간보다 더 나은 예가 없습니다. 맞습니다. 좋습니다.

14절의 마지막 구절은 아담이 오실 자의 예표라고 읽습니다. 제가 너무 앞서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어려운 구절들에 대한 제 이해를 설명해야 합니다.

사실, 저는 그렇게 할 것이고 다음 세션을 시작할 때 이 어려운 상황에서 더 많은 문제에 대해 서두를 것입니다.

이것은 인간과 죄에 대한 교리에 대한 그의 가르침에서 로버트 A. 피터슨 박사입니다. 이것은 세션 15, 원죄, 로마서 5:12-19, 계속입니다.